

학술부



이 과 대학 석 낙한 여 학생 회



● 여러분의 애송 시 ●

이땅, 아름다운 여인이고 싶네

이제 이런 여인이고 싶네
강물같은 스물을 넘어
우리들의 어머니가 당당히 그러하셨듯
한 많은 이땅 대청에서
맑은 피 흘리는 남자를 만나 사랑하고 싶네
온 가슴 넉넉히 힘이 되고 싶네

이제 이런 여인이고 싶네
나면서부터 윗목으로 던져져 버린 이름 석 자
화려한 자본시장에 상품으로 팔리워진 푹푹한 순결
착취에 한 겹 더 착취를 받는 식민지 조국이라면
이제는 내 손으로 당당히 찾아오겠네. 온몸에
감긴 더러운 굴레 당당히 끊고 오겠네.

이제 이런 여인이고 싶네
갈라진 하늘아래, 갈라진 그리움
오뉴월에도 서리를 내리는 간절한 염원이 되어
분단된 조국 산천 곳곳에
지천으로 피어나는 너도 나도
눈부신 통일의 꽃이고 싶네. 진정 이렇게
아름다운 이땅의 딸이고 싶네.



회 장 인 사 말

세상만물을 금방이라도 녹여버릴 듯이 기승을 부렸던 불
별더위도 이젠 흔적조차 아련해지고, 땀흘리고 일하는 사
람들에게 무한한 활동성과 생산성을 한층 더 부여하는 듯
신선한 가을바람이 대지골 전역을 감싸고 있습니다.

용두사미라는 귀에 익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봄 날에 세웠던 희망, 꿈을 한껏 담은 한 해의 목표, 계획
그것의 달성을 위하여 그동안 씁없이 달려왔다면 지금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꾸준함
일 것입니다.

흔히 가을병이라는 몸쓸 병에 걸려 하반기를 한 해 다 산듯,
안이하고 긴장감 없는 생활로 일축하기 쉽상인 시기이기
때문이죠. 기간 농과대학 여학일꾼으로서 여학우의 학교생
활에서의 주체적 참여와 요구를 책임지고, 담아내고자 여
학우 복지부분 개선과 행사에서의 여학우 참여공간확대, 성
폭력과 성상품화의 적극적 방안모색에 주된 고민을 하여
왔으나,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한 이땅 여성들이 길들여져온 왜곡된 여성상은
모든 일에 주체로 섬이 꽤 커다란 의지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함도 아직까지는 주지의 사실일 겹니다.

계속되는 자주학원에 대한 탄압과 날로 심화되는 여대생
취업문제로 인한 부담이 존재함에도 여학우 삶과 필수불가
결한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는 여학운동과, 그의 입지가 되
고자 하는 여학생회도 수해를 거듭하면서 변화 발전해 오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무척이나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세고 다정스런 우리들의 어머니의 품성으로 힘차게 2학
기도 살아봅시다.

여학생회실 가까운 어느 학회실에서 들려오는, 아마도 이번
대동풀이 참가곡 연습인듯 합니다. 노래소리가 무척이나 정
겨운 때에 대지골 천박여학우에게 띄웁니다.

그대들에게 여학생회실은 문턱이 없습니다.





여학생회를 알아갑니다.

여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여회는 바로 학우 여러분의 고민과 관심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학생 운동을 벌어나가는 곳입니다.

그럼,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일까요!

한 마디로 요약하면 여학우들의 처지에 대한 과학적 인식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학우 스스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한사회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여학우 한명 한명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조국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여학생 운동이 너무 거창하다구요?

아닙니다. 여학생 운동은 여학우와 여회, 여부에서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학문, 생활, 투쟁의 공동체인 자주적 학생회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부문 운동인 것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예와 함께 여학생회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미제국주의가 만들어낸 퇴폐적인 향락문화를 깨뜨리기 위한 운동을 가장 치열하게 전개했던 '92년 윤금이씨사건 그리고 성의 순결을 무참히도 짓밟았던 우리 사회구조의 모순을 폭로한 보은·진관사건 또한 지성인들의 정당이라는 대학에서 더욱 심화되는 여성의 성상품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회는 우리 여학우 남학우와 함께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참인간 해방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안내해주며 그 자리매김을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적인 삶을 지향하는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고 생활복지 부분에서도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참 일이 많죠?

하지만 여회는 결코 외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여학생회의 옆자리엔 항상 학우여러분이 우뚝 서 있기 때문이죠.





● 우 조교 “성희롱 사건”에 관하여 ●

우 조교 ‘성희롱 사건’에 관하여

국 내 첫 성희롱 소송이 4월 18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로 두 세 사람만 모여도 이런 이야기가 오고갈 정도로 사회적 관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막상 그 주인공인 우영은 씨가 자신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나섰던 것에 비하여 사건의 본질이 많이 왜곡되게 표현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것이다.

‘성희롱’이란 말은 미국에서 정립된 섹슈얼 헤러스먼트를 직역한 말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성폭행, 성폭력이란 것이 더 적당하다 할 것이다. 성폭행, 성폭력이란 말은 단순히 강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나 음담패설 등도 이에 속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이란 말이 강간행위로 대신 사용되고 있어 성희롱이란 말이 쓰이게 된 것이다.

성적 모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던 부분이며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어린이가 무심코 던진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듯이 남성들의 애정의 표현, 혹은 농담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왔던 부분중의 상당수가 여성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 또한, 자신의 존재까지 의심하여 자아의 상실을 가져온 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형법상의 성희롱이란 명칭은 가해자인 남성의 입장에서 붙여진 명칭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섹슈얼 헤러스먼트에 해당하는 행위가 희롱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아 일종의 성적 모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3천만원 배상이라는 승소 판결로 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좋아졌다는니 모든 것이 다 풀렸다는 식의 사고는 잘 못 되었다고 본다.

이번 사건으로 규정된 섹슈얼 헤러스먼트는 지위나 권한이 우월한자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해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며 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이법의 한계점은 첫번째로 우리 여성들이 버스나 전철등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우연히 당하는 단 한 번의 성적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기준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성폭력 특별법도 성희롱은 형법상의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성희롱에 대한 피하자는 손해배상을 통한 민사적 해결의 길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 똑똑한(?)여자가 승소한 사건이며 곧 잊혀질 사건이 아니라 수 많은 여성들이 자주성을 가진 주민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히 성적대상으로서만 대접받는 현실을 거부하는 의미있는 투쟁이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이 땅의 남성과 여성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이 판결의 희생자가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성에 대한 분별을 잃는 것이 남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인격에 있어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특권의 상실이 아니라 남 여 모두가 평등하고 자주적으로 살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요즘, “앞으로는 여자한테 말하지도 쳐다보지도 만지지도 못하겠다.” “3천만원이면 되는데...” “3천원이면 되는데...” 하는 말들이 유행하고 있는 데 우리는 학우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이러한 말들은 장난이라든지 무의식속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우영은 씨가 약 8개월 간에 걸친 법정투쟁속에서 얻은 성과점을 받아안기 보다는 비꼬거나 무시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우리 여학우나 여성들을 대상화 시키는 사회풍토에 동조한다하는 뜻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이번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여학우들도 이러한 경우를 당하였을 때 서로간의 관계를 위하여 숨기고 참기보다는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 하여야 할 것이다.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토하여 우리 사회통념들을 깨트리고 이제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정폭력은 아내구타와 자녀학대 행위 등의 형태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신매매·강간·성추행 등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유형, 무형의 폭력 중에서 특히 아내구타는 사회 인식적으로 그 심각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갤럽조사에 의하면 57.5%의 남편이 배우자를 때린 일이 있으면 한국 여성의 전화 구타 상담중 일주일에 2~3회 이상 맞는 경우가 47%로 아내 구타가 상습적이고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 구타방법 ■

- 손발로 구타 76.5%
- 닥치는 대로 46.7%
- 흉기 사용 29.1%
- 가둬두고 때림 18.4%
- 옷 벗기고 때림 10.6%
- 담뱃불로 지짐 7.5%

* 2가지 이상 선택으로 100%가 넘음

구타로 인하여 51.7%가 병원치료를 받은 매우 심각한 상해이며 정신적 피해도 정신분열증, 스트레스 장애, 성격장애 등의 정신 신체 장애도 일어난다. 구타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통받고 자신이 구타 당함(40%)으로써 직접적으로 고통 받는다.

이러한 아이들은 신체적 폭력과 정서불안 등 정신적 피해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폭력을 학습하여 또 다시 폭력가정(구타 가정에서 자란 폭력 남편이 33.8%)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폭력의 원인을 보면

첫째, 우리 여성의 몸(남성도 마찬가지)을 성적 도구나 상품으로 전락시켜 인간 경시 풍조가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 병폐로 만들어 놓은 재벌입니다.

둘째, 현 정권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세계 3위! 이런 수치스러운 것에 1, 2, 3위를 다투는 것이 다름아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제화, 개방화를 부르짖는 김영삼정권의 실태이다.

성폭력 특별법 등등 운운 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외세입니다.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사대주의, 노예 의식을 유포시켰던 것은 바로 종교르러 앞세워 들어온 외세이며 음란 만화, 음란 비디오 등 퇴폐 향락 폭력문화로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썩어 들어가게 하면서 인간 경기풍조를 낮게 하였는데 이는 바로 미군기지 미군놈들에 의해서입니다.

넷째, 가부장적 권위 의식과 지배욕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확고한 신념 속에서 사회속에서 당하는 좌절감 등을 집에서 푸는 것 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과 희생자로는 1992년 9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오다 정당방위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김보은·김진관 사건'과 1994년 2월 '부산 여교사 남편살해 사건' 그리고 '양애리 학우사건' 또 하나 작년엔 충북대에서 수학교육과 여학우가 애인에게 맞아 죽는 등, 가정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로 점차 확대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첫째, 형법내에 가족아내구타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매 맞는 아내가 구타 관계를 떠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계유지가 지나친 위협을 받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이나 노동시장 내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자녀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폭력 남편의 치료와 교육을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나 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들 의식 밑바닥에 깔린 통념을 과감히 깨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 할 수 있다.



학술부 세로 모임

3월 11일.

- 안건 1. 3월 학술부의 방향. 목표.
(3월 시적 성적)
2. 건국학교 준비 (의의. 목표)
3. 학술부 1년 사업 계획 ~~준비~~ 준비
참가- 발제. 사회대. 경명대.

1. 사업 계획 ~~준비~~ 고안

2. 3월 학술부 목표.

- 1) 시적 성적- 개강 이후 새내기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욕구
- 각 단위나 동아리마다 신입생 사업의 활기

2) 목표

- 대학생활 사업은 학우들에게 대동적으로 선행하자.
-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작업을 통하여 소모임 건설에 관심을 다져자.

3. 건국학교 준비.

공유



민주 남성

3월 22일.

1. 단체 상황

법대 - 신입생 환영회

등교 - 1시 40분

양 애리 학우 선정

폐기나눔 영려제 감상을 체험.

< 소모임 상황 파악.

거리 준비.

사회대 - 소식지 준비

단체랑 일정 공유가 안됨

일주일 간부제 시행중. 반응이 좋음.

경영대 - 소식지 준비.

바다 상영중. (주에 어려움)

2. 간부 학교 준비

의의 - 여학생들이 함께 알아보고 힘을 얻어내는장

목표 - 간부로서 지능성을 가져낼 수 있는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성 (윤치 승감)
총서 1년 총노선을 함께 공부하며 흥취. 단어, 과제가 하나가 되자.

내용 - 총서선. 간부론,

과외부 - 전제상황이 맞게

정세 - 여성운동과 사회운동의 역사 흐름.

체류대회.

여성문제 학습.

형식 - 하루 강의와 어울리는 시간

다드관 (간부들이 고민)

분임 드를 - 한 번씩



민주 남성

3월 31일.

양건 - 1. 간부학교

2. 학술부의 위상. 역할

3. 3월 총화. 4월 전망.

1. 간부학교

1) 간부들 - 간부의 품성. 사업작품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속에서 실천활동속에서 단련)

- 여학생 운동 > 실천적인 고원
- 간부들 사대어 관계
- 여성임을 자랑스러워 해야

2) 여성학습

- 여학생 운동사 > 여학생의
- 여학생의 모습 > 여성의 자긍심

2. 학술부의 위상. 역할.

- 여성 문제의 인식 확산
- 여학생 운동의 좌표. 명시.

3. 3월 총화

- 실질적으로 바쁘게 움직이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점을 알아안지 못하였다.
- 많은 활약을 만나서 여학생회 간부라는 자신감의 생기도.
-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안되어 성과점을 남기기가 어려웠다.

4. 4월 전망.

- 소모임 위상 역할등 정형은 세우자.
- 체계적인 소모임 건설에 총매진
- 간부학교를 바실있게 준비.



민주 남성

4월 7일

안건 - 소모임

간부학교

1. 소모임

① 여학생 현황 보

② 위상. 역할

- 식민지 조국의 현실속에서 우리 여성의 삶을 인성함, 자주적 주연 주체로 여학생들을 북돋아준다.

- 여학생의 후배대로서 여성문제를 학우속에 광범위하게 인식시켜준다.

- 과여부 강화

③ 소모임 조직화 방안. 원칙

- 건수가 직접 맡도록 한다.

- 유천적 결합을 해들이 가면서 여학생의 소모임의 정력한 역할과 목표를 살려내고 우리 사회속의 여성의 위치를 자각시켜 줄 것이다.

2. 간부학교

단위에서 드로 조직화 → 간부를

드로들 1. 여학생의 간부 위치

2. " " 역할

3. 저급까지증에서 여학생 간부로서 가장 어렵고 힘들때

4. " " 보람과 승자 가졌을때

5. 간부의 품성

6. 간부들간의 관계.

7. 학우들 속에서 간부는 어떻게 해야

8. 지금 간여부 문제



민주 남성

3. 각 단의 상황 보고

사법대 - 소모임 선정. 개인자료

소리북. 세미나 계획

사업 계획서 고민

경영대 - 기획자본 고민. 학습

소모임에 대한 고민 하나 많함

농대 - 여취 도서목록 정리. 배치

여부장 운영회 - 간부학교 공유

원서학과 - 소모임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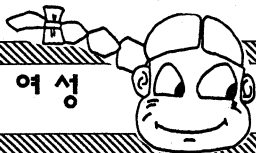
조정 .. - 설문지 등해 준비

4. 서로모임 평가.

농 - 혼자서 고민이 아니라 함께 풀이할수 있는 힘을 얻었다

사법 - 서로모임속에서 힘을 얻지만 단에서 풀이내는데 힘함

사법 - "



4월 14일

1. 학습

2. 단위 종합

경병대 - ^{주제적으로} 토론이 안됨

~~경병대~~

사령대 - 개별 토론

송대 - ① 여학생의 간담회 위치

- 만족해함에 여학생이 사실수 있도록 의식화 조직화

- 자습시간은 학우숙이 기만하지 못하고 학우들에게 배우지 못함.

- 간담회의 신념과 사상이 없으므로 흔들림.

② 간담회 역할

- 만일 용사들은 아니며 여학생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자주적
주인 주체로 일깨워주어야

- 여성문제, 전문성 확보, 여학생 의식화 조직화.

③ 간담회 학우들에서

- 여학생 간담회로서 자중심, 자신감 있게 여학생을 만나야

- 학우들을 만나는데 목적의식성을 가집 자신감.

④ 힘들었을 때

- 단체와의 관계

- 여학생들의 의식 흐름이 파악되지 못하고 학우들의 보충에
수동성만 보았을 때

- 간담회 광배

경병대 ① 간담회 위치 - 여학생 이해, 요구를 받아안는다

② 어렵고 힘들었을 때 - 인간관계.

함께 사업할 폭이가지 못하고 흔들릴 때!

③ 보람 없지 - 대중사업은 끝마치고 보람.



민주 남성

③ 품성 - 낮은 원저 생각

3. 소모임 상황 점검

팀대 - 2명 조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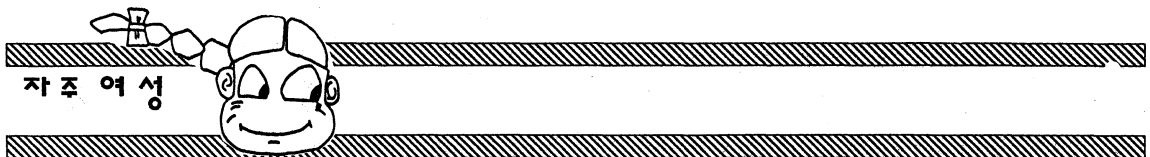
경험대 - 학생들과 간담회. 학우들 만나는 함께

농대 - 조병학과 여간부 소모임공고

사학대 - 여무장속에서 여동맹에 대한 이야기

4. 평가

사학대 - 간원하게 살아온 자세 만성



4월 2일

1. 학습.

2. 타어 상황.

경매 - 소임 - 학우를 만나는 하는데 구체적 성과 X
모든 강목이 함께 하지 못함.

총대 - 개인적인 사정으로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안됨.

서약대 - 국가 의무장병은 만났으나. 구체적인 편이 안 짜임.

3. 간부학교 상황

경 - 토론이 활발하게 안됨

총대 - 과외무장병 시험이 잘 안됨.

만나게 하였으나 의무장병들의 개인적인 사정과. 무리한 가짐.

서약대 - 간부들끼리의 경우.

과외무 장병은 잘 안됨.



4월 28일

1. 간부학교 평가

2. 4월 총화

목표 - 간부학교의 소임 조직화로 여학생들의 자질향상과 자신감을 드높여
새로운 5월 투쟁 준비.

- 소임 발판 마련

평가 - 소임이 논의된 뒤 구체적인 상황 파악과 대안 마련 부족
모든 것을 의의속에서만 끌어내려고 함
자신대. 공대의 구체적 상황 파악 필요.

3. 5월 전망

1) 총여대사상적 흐름

- 양대리 학우 선, 무조건 성리를 선을 중심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전파한다
- 생활속에서 대대문화적결연들을 벌여나가며 나아가 밤미, 반전 밤김 의식화에 주력
- 열사들의 삶을 이어받고 5월문제 해법의 주안으로

2) 조직적 흐름

- 조. 총. 계. 사. 수
- 간부학교 성과점 명확히 챙기자
- 모든 모임 인착하
- 특강속에 학습을 채양지

3) 대중적

- 여학생 행동지침. 5월 투쟁의 여학생 단결의 장
대중적 출발식이 조직화 박차 → 성과점



민주남성

• 중심 일정

1~8: 광주종합 출방식 (4)

남종련 " (6~7)

남여련 " (7)

9~15: 승학학교 (9~12)

16~22: 5.18 투쟁기상

5월 여성제 (21일)

23~29: 한중련 출방식 (24~29)

전여대련 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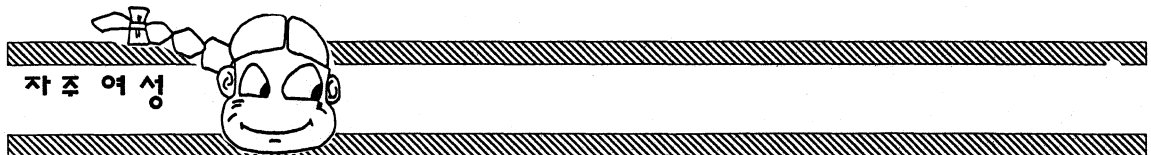
4 학습 5월 목표

- 단서의 대응적 학습제도에 결합. 동일한 내용을 내외자
-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관점과 지금의 현실등을 학우와 함께 공감해 들어간다
- 매시 대담시합속에서 여학우 조격리로 소모임 강화 여학쟁력 강화의 귀선점.
- 책소개

5. 대외 공화

능 - 간부학교 중심으로 들어쥐지 못하고 청맹제로 인하여 힘이 빠지기도 할
간부들의 통제

사회 - 성숙한 생활
간부들의 통제



학술부 세로모임 제안서

어렵고 힘들었던 간부학교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아서 힘이 빠지기도 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아닌데 하며 가슴 졸이던 간부학교. 시연 섭섭하죠? 반짝이는 눈을 빛내며 강의를 듣던 여부장님들이나 막판 뒷풀이때 하나가 되어 어울리던 몸짓들이 너무나 선하게 떠오릅니다. 약간의 아쉬움을 남긴채 끝난 간부학교였지만 또한 내일을 기약하며 멋진 정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승희열사의 외침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월이 다가왔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쌀투쟁과 또한 전쟁이 금시라도 일어날것 같은 분위기, 올해로 공소시효가 다되어 간다는 광주항쟁, 바로 우리가 될수도 있는 양애리 학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관성과 타성에 젖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승희열사는 몸으로 일깨웠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승희열사의 삶 따라배우기로부터 앞으로 펼쳐질 대중투쟁으로부터 실천합니다. 떠오르는 새벽인 우리 학술부장님들 열심히 삽시다.

안 건

1. 간부학교 평가
 - 단위 평가 보고
 - 준비 정도
 - 내용과 형식
 - 앞으로의 결의

2. 4월 총화
 - 목표를 세우지 않으셨던 간부님들일지라도 꼭 평가해오세요.

3. 5월 계획
 - 목표
 - 기획거리 주제 고민

일시: 4월 28일 이른 시간에 총여방에서

새로운 의욕을 불태우며 살고 있는
총여학생회 이쁜 솔찬이가

6월 6일 (선정부. 학습부 합동 워크숍)

주요 (

1. 성취론이란

성취론의 개념 - 본질적으로는 성취력
성적 모욕의 개념 정리.

우조교 사건의 교훈

- 여성도 주체적으로 나서야
- 사회적으로 '성적모욕'에 대한 관심도를 불러 일으킴.

폭력이 나타나는 원인. 본질

- 폭력을 견디는 사회
- 기우장적 구조 (잘못된 교육, 사회적 풍습, 성별분명)

2. 역할 분담.

사회대 - 성취력 득면화

형대 - 가정 폭력

총여 - 우조교.

3. 기획 선정을 어떻게 하였는가

방도 - 총여 일관적 ~~한~~ 기획안 제시
단체 동시에 선정



민주 남성

학술부, 선전부 세로모임 제안서

5월의 시작입니다.

출범식 준비, 지민아 학우돕기, 시험준비. 정신없으시죠?

그러나 민족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청년학생들에게는 책임지고 나가야 될 일이 너무도 많아서 한가로울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단순히 실무로 느끼기보다는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여학간부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양애리 사건, 서울대 우조교 사건들로 인하여 요즘 용봉골에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성희롱과 가정폭력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관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분출되기보다는 ‘3천만원이면 되는데...’ ‘3천원이면 되는 데....’ 하며 단순한 농담 따먹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여학간부들은 막중한 사명감이 느껴지시지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사명감을 느끼고 우리가 무엇을 해볼 것인가 고민을 해봅시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인데요. 5월달 기획선전으로 양애리 학우 사건, 우조교 성희롱 사건등을 중심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으로 전파해들어가는 데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남총련, 남여협출범식이 혁명의 불바람을 이르고 있는 바로 우리학교에서 열리어 많은 학우들에게 알려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급작스런 제의와 박박한 일정이지만 우리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할려고만 한다면 못해낼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족 전대 여학일꾼으로서 자존심을 걸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일 시: 5월 5일 10시

장 소: 총여학생회실

안 건

1. 토론

- 1)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성희롱의 범위, 성희롱의 문제점, 지금까지의 법 규정)
- 2) 성희롱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 3) 가정 폭력이란 (문제점, 사회에 끼치는 영향, 발생 원인)
- 4) 성폭력 특별법등, 지금까지의 법의 한계와 사회인식 정도
- 5) 앞으로의 방향 (학우들의 구체적 실천 방도까지)

2. 선전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할 것인가?

- 참고>
1. 모임에 오기전에 자료를 꼭꼭 읽어보고 옵시다.
 2. 선전부장님과 학술부장님이 나란히 손을 잡고 오시고 만약에 두 분이 아무도 없는 단여의 경우는 주체 한 분이 꼭 결합합니다. 만약에 불참 단여가 있을 경우, 앞으로 벌어질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8천 여학우와 함께하기 위하여 살아 움직이는

제 10대 총여 송찬이와 지영이가-

우조교 '성희롱 사건'에 관하여

-기획글 첫번째

국내 첫 성희롱 소송이 4월 18일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로 두 세 사람만 모여도 이런 이야기가 오고갈 정도로 사회적 관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막상 그 주인공인 우 영은 씨가 자신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나섰던 것에 비하여 사건의 본질이 많이 왜곡되게 표현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것이다.

'성희롱'이란 말은 미국에서 정립된 섹슈얼 헤리스먼트를 직역한 말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성폭행, 성폭력이란 것이 더 적당하다 할 것이다. 성폭행, 성폭력이란 말은 단순히 강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나 음담패설등도 이에 속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이란 말이 강간행위로 대신 사용되고 있어 성희롱이란 말이 쓰이게 된 것이다.

성적 모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던 부분이며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어린이가 무심코 던진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듯이 남성들이 애정의 표현, 혹은 농담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왔던 부분중의 상당수가 여성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 또한, 자신의 존재까지 의심하여 자아의 상실을 가져온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형법상의 성희롱이란 명칭은 가해자인 남성의 입장에서 붙여진 명칭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섹슈얼 헤리스먼트에 해당하는 행위가 희롱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아 일종의 성적 모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3천만원 배상이라는 승소 판결로 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좋아졌다는 모든 것이 다 풀렸다는 식의 사고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번 사건으로 규정된 섹슈얼 헤리스먼트는 지위나 권한이 우월한자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해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며 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이법의 한계점은 첫번째로 우리 여성들이 버스나 전철등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우연히 당하는 단 한번의 성적모욕감을 주는 행위등에 대한 처벌기준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성폭력 특별법도 성희롱은 형법상의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통한 민사적 해결의 길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 똑똑한(?)여자가 승소한 사건이며 곧 잊혀질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이 자주성을 가진 주민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히 성적대상으로서만 대접받는 현실을 거부하는 의미있는 투쟁이었다. 이

를 계기로 하여 이땅의 남성과 여성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판결의 희생자가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성에 대해 분별을 잃는 것이 남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인격에 있어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특권의 상실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자주적으로 살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요즘, “앞으로는 여자한테 말하지도 쳐다보지도 만지지도 못하겠다.” “3천만원이면 되는데” “3천원이면 되는데....”하는 말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학우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이러한 말들은 장난이라든지 무의식 속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이 말은 우 영은 씨가 약 8개월 간에 걸친 법정투쟁 속에서 얻은 성과점을 받아안기 보다는 비꼬거나 무시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우리 여학우나 여성들을 대상화 시키는 사회풍토에 동조한다라는 뜻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이번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여학우들도 이러한 경우를 당하였을 때 서로간의 관계를 위하여 숨기고 참기보다는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 하여야 할 것이다.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통하여 우리 사회통념들을 깨트리고 이제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에 대하여 . . .

가정폭력은 아내 구타와 자녀 학대 행위 등의 형태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년매대·강간·성추행등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유형, 무형의 폭력 중에서 특히 아내구타는 사회 인식적으로 그 심각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궤련 조사에 의하면 57.5%의 남편이 배우자를 때린 일이 있다면 한국 여성의 전화 구타 상담 중 일주일에 2~3회 이상 맞는 경우가 47%로 아내구타가 상습적이고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구타방법

손발로 구타	다치게 대로	흉기 사용	가둬두고 때림	옷벗기고 때림	담배불로 지짐
76.5 %	46.7 %	29.1 %	18.4 %	10.6 %	17.5 %

(2가지 이상 선택으로 100%가 넘음)

구타로 인하여 51.7%가 병원치료를 받은 매우 심각한 상해이며 정신적 피해도 정면분열증, 스트레스 장애, 성격장애 등의 정신 신체 장애도 일어난다.

구타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통 받고 자신이 구타 당함(40%)으로써 직접적으로 고통 받는다.

이러한 아이들은 신체적 폭력과 정서불안등 정신적 피해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폭력을 학습하여 또대 폭력 가정 (구타 가정에서 다룬 폭력 남편이 33.8%)을 만들어 나갈 대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이해 할수 없는 것은 남편이 말하는 아내 구타의 이유인데 성격이 난폭해서 (58.8%), 남편의 열등감 (53.3%), 의처증 (38.1%) 이다.

이러한 폭력의 원인을 보면

첫째, 우리 여성의 몸 (냄새도 마한까지)을 성욕된 도구나 상품으로 전락시켜 인간 존엄 동조가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 병태도 만들어 놓은 **대별**입니다.

둘째, **현** 정권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세계 3위 ! 이런 수치스러운 것에 1.2.3위를 닦는 것이 다름아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제화, 개방화를 부르짖는 김영삼 정권의 불태이다. 성폭력 특별법 등 윤문 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외세입니다.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사대주의, 노예 의복을 유포하던 것은 바로 풍조를 앞세워 들어온 외세이며 음란 문화, 음란 비디오 등 퇴폐 향락 풍조를 문화로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뒤흔들어지게 하면서 인간 경시 풍조를 낳게 하였는데 이는 바로 미군기지, 미군놈들에 의해서입니다.

넷째, 가부장적 권위 의복과 지배욕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확고한 편견속에서 사회속에서 당하는 적절감 등을 집에서 두는 것 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은 1992년 9월 때부터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오다 정당한위로 날인을 저지르게 된 '김보은, 김진환 사건'과 1994년 2월 '부안 여교사 남편 살해 사건', 그리고 '양애리 학우 사건' 또한 적년에 충북대에서 수학여행과 여학우가 애인에게 맞아 죽는 등, 가정내에서 범인이 아니라 사회로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첫째, 형법내에 가족(애) 구타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매맞는 애가 구타 관계를 떠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계유지가 지나친 위협을 받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이나 노동시장 내의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셋째, 자녀 문제에 대한 대처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폭력 남편의 치료와 교육을 위한 정도가 마련 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다.

제도적 장치나 법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람들 의식 밑바닥에 깔린 하지만 통념을 과감히 깨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새로 제정된 성폭력 특별법은?

-기획글 세번째

“삼입이 됐어? 왜 반항하지 않았어.”

“당신도 즐긴 것 아니야? 당신 상습적인 꽃뱀이지?”

이런 추궁은 일선 형사들이 강간 피해자에게 한번쯤 던져보는 ‘감초’에 해당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와는 달리 자신이 피해 사실과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강력히 저항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폭력법의 신설내용-

1. 기존의 형법에서 배제했던 성폭력 범죄 유형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등을 들 수 있다.
2. 상담소의 설치나 보호시설의 설치등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3. 가해자 처벌규정에 형벌제도 외에 보호관찰과 보호감호 제도를 도입한 점이다.
4. 피해자 보호절차에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과 비공개 심리제도가 도입된 점을 들 수 있다.
5.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건 상담이나 지도, 신체적 정신적 치료등의 의료보호 제도를 채택.

-성폭력법 문제점-

1. 실체법상의 문제

- 1) 성폭력 범죄의 범주를 강간, 강제추행, 의제강간으로 단순화시키고 있다는 점과 성폭력 형태에 대해 정도의 차이를 문제시하지 아놓고 성기삽입 여부만을 따지는 양분법적 접근이라는 점.

2. 절차법상의 문제

1) 친고죄에 관련된 부분

친고죄는 애초에는 피해여성의 명예를 고려해 자신이 고소나 고발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세상에 이를 알리지 않아 여성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주지않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었지만 결국 은폐된 피해자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형사소송 절차상의 문제점

성폭력의 피해자는 많은 시간을 망설여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남성

중심적인 경찰관들의 태도로 인해 합의를 종용당하기도 하고 불기소 처리되는 사례가 많고 재판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범죄 행위보다 피해자의 심문과정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는 사법부가 앞장서 피해 여성을 다시 한 번 강간하는 일이다.

92년 보은이 진관이 사건때 10만 여명의 서명의 힘으로 인하여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남겨놓았는데 이는 김영삼 정권의 한계를 노출시킨것에 지나지 않다. 이제 더이상 여성들이 불안에 떨지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남학우 여학우 모두가 나서 성폭력 특별법 개정운동에 나서야 한다.

5월 19일

1. 학습.

농대 - 준비 X.

경향대 - 1 X

사회대 - 현안 외이용.

2. 단위 상황 총화

농대 - 졸업식 이후로 강목으로 생활력 ↓.

사회대 - 참여형 졸업식 속에서 힘을 얻고 있었다.

생활의 혼동이 단절.

어느새 죽어다니는 구체적 성과점을 얻기 어려움

경향대 - 강목과 자기 개별적 움직임.

3. 승리학교 평가

- 참여에서부터 단역까지 실질적인 체계로 잡아가지 못함.

- 준비 주체가 명확하지 못하였고 현대 주체와의 역할 분담이 X.

- 79 강목만 참여하는 형식

성과점 - 뛰어난 강사진속에서 많은 고민거리가 제시됨



민주 남성

세로모임 제안서

남총련, 남여협 출범식이 끝났습니다. 단대 체육대회다. 출범식이다 해서 엄청 바쁘게 뛰어다녔는데 우리 여학단위에서는 얼마나 많은 성과점을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6명으로 시작했던 학술투모임이 한두명씩 힘들어 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일러때일수록 여학간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동지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동지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앞에는 5월이라는 정세속에서 반미 반전 투쟁, 쌀 수입 저지 국회비준 거부 투쟁, 남총련 탄압 분쇄 투쟁, 5월문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투쟁, 민생 민권 투쟁등 많은 투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술투장님들도 식민지 조국의 딸로서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관심과 타성을 깨고 언제나 처음처럼 열심히 투쟁합시다.

안 건

1. 학습
2. 그 간의 상황 총화
3. 승희 학교 평가
4. 소모임 점검

언제나 학술투장님들을 생각하는 속찬이가.

6월 11일

한건 - 1. 여학운 학습.

2. 6월 총화

3. 6월 전망

1. 여학생 운동권.

여학생 운동이 발전하기 위하여

- 사람이 모여져야 한다
- 여학운의 이념과 방향성
- 사람을 준비해야

2. 6월 총화

농대 - 삐딱한 일직속에서 무문운동인 여학운동의 담보가 되지 못하였다
여학가 5명의 성과 - 93년의 의식 흐름 파악
농한.

시학대 - 강목련의 몰신.

강목련의 전투성이 요구

* - 나름대로 우수고 성과를 시건과 양애리학우 세 차건은 중심으로 성취력이나
가장 특력에 대한 학우들의 경각심을 심어주었고 좋은 반응은 있었다
- 조직적인 성과로 일어나는 못하였지만 단서의 중추가 함께하는
사업의 정형은 창출했다.

3. 6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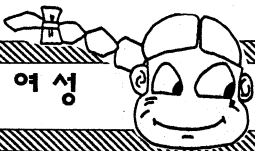
- 식민지 태생된 여성성을 깨트리고 올바른 자주적 여성성을 성립하기 위하여
자주 여성성을 위한 캠페인 운동은 빈이저.



민주 남성

- (실용서 작성)

역사자들의 과다한 글이 성폭력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관점은 극도로
높고 다양한 현상의 원인을 단순하고 자주적 여성에 잘못됨에
대하여 그런 학문의 함께 공유한다.



자주 여성

6월 13일.

< 설문지항 작성 >

- # 과다 노출의 웃음 보여 주는 생각.
- 우리 시대의 웃치림
- 성폭력의 유형은?

방도

- (16일까지 수거
- (17일 분석.

소식지나 기획자료로 공개.



민주 남성

6월 11일.

실용지 분석 < 학술. 선전. 문화 시트 포함 >

평가 - 성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느낌.

개성(?)의 특이한 대학 문화에 대한 고민!

대학문화가 얼마나 시의적절하?

< 남학우 >

< 남학우 >

< 여학우 >

1. 풋차림문화에 대한 노력이 심한곳 - 52명.
처음 문화 - 8명.

유행스타일 - 18명
과다노출. 노출견 - 33명.

기타 (웃겨보. 생상) 18명

2. 타시의 언어적의 상황

① 이머서 - 4명 ② 유행 - 4명

③ 시인해서 - 28명 ④ 기타 - 12명.

3. 웃은 입으로 영향.

자신의 여자 - 5명 유행. - 5명

인물매체 - 6명 주위 친구 - 10명

기타 - 3명

4. 아한 웃차림의 기준
노출이 심한곳 - 45명
행동 - 2명
예 장소 - 1명

과다노출 - 11명.

학우 유행 - 2명

5. 여자시예 여자성 웃차림
활동이 특이한 (●) 36명
개성 - 26명
전전. 다정 - 8명

편한곳 - 43명

개성 - 40명

단정. 여성스러움 - 1명



민주 남성

< 여학우 >

신청소임 - 25명 남 여의 산뜻 6/명
 " X - 15명 기타 -

- ① - 70명
- ② - 31명
- ③ - 66명
- ④ - 40명
- ⑤ - 5명

사회문제 - 35명
 자정자원인 - 41명
 남자의 산뜻 - 9명
 아니다 - 15명

< 남학우 >

6. 도서관에서 여학우의 취향
 신청소임 - 43명
 " X - 25명

1. 취향의 원인 (복수)
- ① 여학우의 수용 - 52명
 - ② 기쁨의 영리취 - 25명
 - ③ 자신의 개성 연출 - 55명
 - ④ 집기 때문 - 25명
 - ⑤ 기타 - 12명

8. 과다노출이 성취의 원인이냐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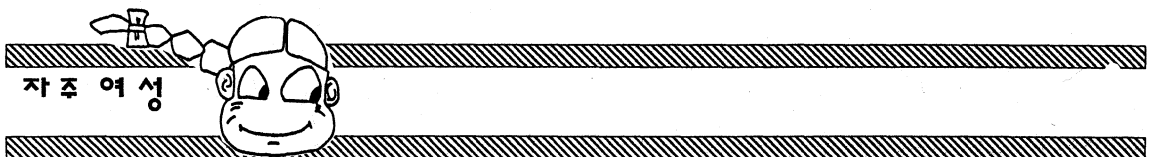
간접적 원인 - 18명 (사회)
 직접적 " - 43명 (원인동기)
 아니다 - 12명
 남녀문제 - 10명

9. 과다노출의 구체적인 심경

성적 자극 - 21명
 사랑의 여차이 - 11명 (이상)
 처다한다 - 18명
 육관심욕 - 16명.

10. 흥여에 따라달 - 고생한다 5.
 생활속에서 여성문제 - 2.
 대응수업은 대응적으로 남학우와 함께.
 여성 문화에 관심

비교상명 드물게도 했으면 여성문제 인식 향상
 취업 부문에 신경은 썼으면 자하고있고 인간 존엄을 권익 향이 좋다.



우리시대의 옷차림 (?)

2만학우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에도 지나칠 수 없는 1학기 마지막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는 바쁜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8천 여학우의 삶속에 2만 청춘과 함께 하기위하여 몸부림 쳐왔지만 제 10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면 갈수록 우리여학우들의 자주적 삶의 길을 열어주기보다는 외형적인 미만을 추구하고 수동적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려는 왜곡된 여성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여름에 유행이라며 배꼽티나 짧은 반바지가 텔레비전 화면과 잡지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고 시내에서나 볼 수 있던 옷차림들이 우리대학 후문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과다 노출' 이다, '개성' 이다 라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 10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이러한 옷차림과 문화에 대하여 학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하고 올바른 옷차림에 대하여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성실한 답변부탁합니다.

작성자 성별: 남, 여

학번:

8천 여학우의 진솔한 벗 제 10대 총여학생회

1. 요즘 유행하는 옷차림 문화에 대하여 생각해보거나 친구들과 이야기 해 보신적이 있지요? 그렇다면 주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 하십니까?

*여학우만 대답해 주세요.

2. 처음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나시와 반바지가 이제는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생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옷을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옷을 입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이뻐서 ② 유행이기 때문에 ③ 시원해서
④ 기타

*여학우만 대답해 주세요.

3. 자신의 옷을 결정할때 어느것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예: 텔레비전이나 잡지, 친구의 권유에 의해,.....)

4. 같은 옷차림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어떤사람은 '야하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개인마다 보는 관점의 차이일건데요. 학우께서는 야하다는 옷차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5. 예전에는 여대생하면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여대생을 떠올렸으나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여대생의 옷차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작년 모대학의 경우는 과도한 노출의 여학우와 반바지 차림의 남학우는 도서관의 출입을 금지하였고 조선대의 경우는 여학우의 신체의 일부를 보기 위해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도 많은 남학우들이 정신 집중이 안된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우께서도 이렇게 옷차림으로 신경이 쓰인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옷차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이러한 옷차림이 유행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우가 생각하는 것을 모두 표를 해주세요.

- ① 무분별한 외국 문화의 수용
- ② 기업주의 영리 추구
- ③ 자신의 개성 연출
- ④ 여름철 덥기 때문에
- ⑤ 기타

8. 여름철 과다노출이 성폭력의 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합니다. 학우의 솔직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남학우만 대답해 주세요.

9. 남성의 본능은 어쩔 수 없다라며 버스에서나 전철에서의 성추행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당연시 여기는 견해도 있습니다. 과도한 노출의 여학우를 보면 학우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솔직하게 대답해주시요.

10. 마지막으로 총여학생회에 바라고 싶은 점이나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기탄없이 써주십시오.

그동안 답변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학우의 소중한 답변은 총여학생회 소식지와 기획자보등을 통해 공개가 될 것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민족전대 학우들의 올바른 입거리 문화를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준비 잘하시고요, 우리들의 생명줄이 달린 국회비준 저지 투쟁을 위한 2만 학우의 시험연기를 묻는 16일 총투표에 함께 해서 2만 학우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꼭 지켜냅시다.

7월. 2월.

학습목 상반기 중하

1. 사상적 측면

- 일관된 학업 의식과 흐름을 잡아 내지 못함
- 가정폭력 등 역외 득남고려로 힘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학업과 함께 대중적으로 풀어내지 못함.
- 전문성의 무속으로 사건을 덮어내는데 급급. 과학서 국제적 대안은 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 자주적 여성상 정립 등 일관적 내용은 잡아내지 못하고 일러짐.

2. 조직적 측면

- 단서 학습과장들의 고문 등 듣는 수준이었고 음악로 중화하지 못함
- 사보 보도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노력속에 단축화. 정형화.
- 단서 학습 운동에 대한 보장이 안됨.
- 소모임 - 단서에서 절박함이나 필요성은 낮은 인식하여 못함.
자이 대중을 만들어주는 노력 부족
학업 조직화의 다양한 방법 고민
(소모임) - 공대 (소식지, 티셔츠 소모임)

3. 대중적 측면

- 학업에게 공개에 대한 끝까지 책임지지 못함. (대중과의 관계)
- 학업과 함께 기획. 집행 중반에 구상 갖춰지 못함.

상하중. 가정폭력. 성폭력 등 학업이 못처음의 무통과와 수면서
내용적인 한계.



민주남성

8월 22일

안건 - 용문교실

1. 의의 - 2만학우와 함께 잘못된 여성운동의 관점을 극복, 인간해방으로 나아가기
목표 위함 방향은 모색해본다.
 - 8천여학우의 실질적 고민을 함께 풀어내는 장이어야 한다
 - 사전준비와 사후 처리 작업이 통하여 여학 간부들의 활동력
복원과 단련의 장으로 만들어간다
2. 내용 - 선 사랑. 백래. > 제국주의 성침관속에 대학내의 문화.
 - 취업
3. 준비과정 - 강사섭외. - 법. 사법. 자연.
자료집. - 사회 능. 경영
선전 - 선전단위



민주 남성

~~10월~~ → 9월 9일

< 옹호 고실 후기 >

- 자료 준비가 되었고, 구성에 생생함이 삽입이 되었으나, 다른 부분 감사 삽입이 어려움.
- 자여 만났나 같이 준비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들.



민주 남성

용봉 교실 1차 기획안

새로운 계절, 새로운 결의, 새로운 시작.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94년.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다는 힘찬 결의와는 달리, 주객관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던 방학이 이제 마무리 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 시간일수록 우리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총화 해보아야 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선거때 많은 약속을 했었는데... 우리가 1학기때 너무 한 일이 없다. 뭔가 하긴 해야되는데.... 이제 몇개월 안 남았는데, 이번에 뭔가 씩씩하게 해보아야지...” 하는 조급한 생각이 어느새 우리 간부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뭔가 큰 사건하나 터트리자는 식이 아닌 그동안의 총화속에서 우리 학우들의 고민과 생활속에 파고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간부들이 여학생회 간부로서, 여학생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을 해야합니다.

그러하기에 6회째를 맞이하는 용봉교실을 단순히 해왔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우리 간부들이 학우들속에서 함께 부대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한번 시작해봅시다.

지금까지의 성과점을 받아안고 학우와 함께하는 용봉교실의 한걸음을 단결된 힘으로 내딛었으면 합니다.

1. 의의, 목표

1)2만 학우와 함께 잘못된 여성운동에 대한 관점을 극복하고 인간해방으로 나아가기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본다.

지금까지는 학우들의 생활속에서 쉬운부분으로 여성문제를 다가가자는 입장으로 학우들과 총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다가가다보니 일정정도 성과점과 함께 여성운동에 대한 약간의 편향이 나타났었다. 그러하기에 여성운동이 단순히 여권신장이 아닌 남,여 모두의 자주적인 삶을 위한 인간해방의 길임을 학우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8천 여학우의 실질적 고민을 함께 풀어내자.

강연회라는 일정정도의 한계속에서 학우들의 실제적인 고민을 함께 풀어보기보다는 여성문제가 이것이다라는 강변이 되었던것이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단순히 이것이 여성문제다라는 것에서 학우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

3) 사전 준비와 사후조직화 작업을 통하여 여학간부의 활동력 복원과 단련의 장으로 만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여학생회 간부의 생활력과 활동력이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약간의 잘못이해진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여학생회 간부들은 여학우를 떠나서는 살수가 없겠죠? 단순히 판을 준비했으니 보고 가라는 식이 아닌 준비에서부터 철저히 학우와 함께 할때, 우리의 성공은 준비된것입니다.

4) 사람을 남기고 발굴하는 모범을 창출하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사업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실무일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사람은 어디가고 간부들만 헛고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은일에서부터 사람을 남기는 사업을 합시다.

2. 내용

1). 역사, 문학속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의 여성과 남성

강사-윤정모(가안)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억압되고 왜곡된 굴레를 함께이야기 하고 이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자주적인 삶의길인 인간해방의 길을 모색해본다.

2). 여대생의 문화, 성과 사랑

강사-구 성애(가안)

한국사회의 여대생의 위치와 이속에서 나타나는 여대생의 성과사랑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며 여대생의 건강함과 올바른 성과사랑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3). 여대생의 취업 그 실상과 대책

강사-

1부: 취업에대하여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사회속에서 여대생 취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취업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알아본다.

2부: 여대생의 유망직종과 중소기업에서 직접 직종소개와 기업설명, 그 준비 과정을 알아본다.

4. 일정: 9월 13, 14, 15일

시간: 오후 3시30분

5. 준비과정

강사섭외- 각단여 주체중 학술부장을 제외한 주체들

자료집 준비- 각단여 학술부장들

선전, 포스터- 선전 세로모임

학우들 사전 조직화 작업등 사전 준비는 고민합시다.



● 노 ● 래 ● 소 ● 리 ●

어머니 1



사 랫 사는세 상이 돌아 와 너 와 내가부-둥켜 안-을-때
랫 사는세 상이 돌아 와 너 와 나의어깨동무. 자유로울때



모순덩어리 억압과착취 저 불은태 양에 녹아버리네 사
우리의다리 저절로당실 해 방 의거 리로 달려가누나 아



아 우리의승리 죽 어 간동 지의 뜨거운눈물 아



아 이 글 거 리 는 눈 빛으로 두 려 움없 이



싸워나가리 어 머 님해 맑은 웃음의그날 위 해



■ 여성과 세상을 알아가는 책 소개 ■

- 여성 이야기 주머니(녹두)
-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현암사)
- 내일의 신부에게(동녘)
- 세상의 절반 여성 이야기(우리교육 출판부)
- 암탉이 울면(동녘)
-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문예마당)
- 인형의 집
- 연애하는 사람은 강하다(나라 출판사)
- 청춘송가(북한소설)
- 뽕꼭새가 노래하던 곳(살림터)
- 깎데기를 벗고서 2·3권
- 벗(북한소설)
- 60년후(북한소설)
- 눈뜨는 사람
-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녹두)



민들레 처럼 2

박노해 시 김봉철 곡

Am Dm C E

이름없는 들녘에서 공단 뜰까지 산빛으로 깨어 있는 꽃

Dm Am Dm E

한 겨울 시린 추위를 뚫고 초연하게 피어 있구나

Am Dm C E

쓰러지고 짓밟히고 부쉬진 대도 흙빛으로 피어나는 꽃

Dm Am C E Am

단 한번 네게 주어진 시련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G Am Dm C E

새 봄을 향해 진군하려나 그 여린 꽃씨로 언 땅을 뒤덮고

Dm Am F E E⁷

수 천수 백의 생명이 되어 거 치른 세상 뚫고 나서는

Am G Dm Dm⁶ E

민들레 처럼 민들레 처럼 온몸으로 봄을 부르 다

Am Dm⁶ E F E Am

민들레 처럼 민들레 처럼 거침없이 살아가련 다